월요광장



다산연구소 이사장・우석대 석좌교수

서가에서 표지의 색깔이 바랜 책 한 권 을 꺼내서 살펴보니 바로 '덕촌집' (德村 集)이었다. 표지를 넘기자 그 책이 어떤 책인가를 설명해 주는 '해제'(解題)가 보이는데 글의 말미에는 '1985년 2월 무 등산하 은구당(隱求堂)에서 후학 박석 무 근제(謹題)'라고 되어 있으니, 35년 전에 무등산 아래 광주의 '한중고문연구 소'에서 숨어 살 때에 지었던 글임에 분

대강 읽어 보니, 영암 출신으로 당대의 대학자이던 덕촌 양득중(1665~1742) 의 문집을 영인본으로 간행하면서 저자 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책인 가를 설명한 글인데, 제법 자세하게 설명 하여 양득중이나 책의 내용도 대강 알아 볼 수 있게 정리된 글이었다.

그러나 요즘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세태

'실사구시'(實事求是) 주창한 양득중(梁得中)

로 사람들에게 멀어진 채 35년이 지난 오늘, 누가 '덕촌집'을 제대로 알며 양득 중이라는 탁월한 학자를 아는 사람이 누 구인가. 비통하고 슬프기만 하다. 양득 중은 기묘명현으로 불린 호남의 큰 학자 이자 충신이던 학포 양팽손의 6대손이 요, 조선 중기의 큰 학자 우산 안방준의 외증손자로 당시는 영암, 지금은 해남의 계곡면 출신이다. 과거에 응시도 포기하 고 명망 높은 스승들 아래서 오롯이 학문 에만 생을 바쳤다. 하지만 학문이 고명하 다는평가로참봉·주부·공조좌랑·회인현 감·익위·위솔·지평·익찬·김제군수·장령·

사람이었다. 덕촌은 현석 박세채, 명재 윤증 등 큰 스승의 제자였으나, 마지막은 명재 윤증 문하의 3촌(三村)이라는 명예를 얻으며 대학자의 지위에 올랐다. 40세까지 호남 에서 학문 활동을 했으나 스승의 곁에 가 까이 가려고 공주의 덕촌에서 살았기 때 문에 호가 '덕촌'이 되었다. 윤증이 소론 (少論)의 종장이어서 덕촌도 당연히 소 론계로 우암 송시열 계와는 대립각을 세 당파 문제나 학술 문제에서도 큰 비중이

집의·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등의 벼슬

을 두루 역임한 뛰어난 유신(儒臣)의 한

있었지만, 특히 조선의 실학사(實學史) 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점에 서 크게 주목받았던 학자였다. 실학의 선 구적인 학자였기 때문이다.

아 은일(隱逸) 승지로서 더욱 명예가 높 았는데, 임금과 마주 앉아 국사를 논하고 정책을 토론하던 위치에 있던 대단한 신 분이었다. 덕촌은 영조에게 올린 글이나 경연에서 직접 아뢴 말을 통해 당시의 가 위(假僞)적인허위지풍(虛僞之風)의학 술 경향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'실사구 시'라는 중국의 옛날 책에 나오는 명언을 조선에서 최초로 주창(主唱)한 학자였 다. 그는 노론 쪽 가위의 학풍을 배격하 고 실질・실리・실현 등의 실사구시적 논 리로 학풍을 변화시키자고 건의했고, 초 야에 묻혀 있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반계 유형원의 저술인 '반계수록' 을 국가에서 간행하여 유형원의 주장대 로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실학의 논리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

이렇게 뛰어난 호남의 큰 학자에 대한 연구나 현양이 이렇게 더디고 무관심함 을 일깨우기 위해 그때의 해제 말미에서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하고 싶다. "선생을

연구하고 현양하는 일이 너무 소홀했다. 그래서 학계나 사회에서 선생은 너무 알 려지지 않았다. 위에서 말한 대로 선생은 실학의 선구적인 학자였고 아무도 말하 동부승지, 그것도 과거에 응시하지 않 지 못하던 비리를 감히 직언했던 직신이 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이 책의 영인 본 간행으로 널리 문집이 읽혀지고 선생 에 대한 연구가 넓고 깊게 진행되리라 믿 는다."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한 때로부 터 35년, 세월이 그렇게 흘렀지만 볼 만 한 연구 업적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 엇 때문인가.

> 임금에게 올린 수많은 상소문에서 덕 촌은 수취체제(收取體制)를 개선하여 수탈당하는 백성들을 구제하자고 강조 했다. 전제(田制)의 개혁과 당파 싸움을 타파하여 옳고 바른 인재들이 국가를 위 해 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 기도 했다. 영조는 덕촌의 주장을 받아들 여 '실사구시' 네 글자를 궁중의 여러 곳 에 현판으로 걸어 놓고 늘 경계를 삼았다 고 하는데, 요즘의 세상에서도 '실사구 시'를 온 나라에 걸어 두고 그렇게 실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겠 는가. 1742년에 세상을 떠난 덕촌, 금년 으로 300년이 가까워 온다. 그를 다시 기 억하자.

우고학문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. 덕촌은

법조칼럼

공판 기록 열람·등사권에 관한 소고



이광재 변호사

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 정말 예측할 수 없 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. 미담으로 회 자되면서 귀를 정화시킬 수 있는 사건도 있고, 반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온 갖 범죄도 많다. 사회 시스템상 그런 범 죄들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.

을 심어 놓고 도시 전역에 CCTV를 설 치해서 모든 생활을 감시한다면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범인을 100% 잡아 낼 수 있겠지만, 그런 사생활 및 자유가 없는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기에, 또는 기술 수준 등이 아직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해 영화 속에만 남아 있는 장면일 수 있다.

어쨌든 현재로서는 범죄 발생을 완벽 히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.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 해자가 존재하게 된다.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거나, 또는 그 죄질을 변화

시켜 형량을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반면 범죄의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죄에 상 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기를, 그리고 피해

를 회복 받기를 바란다.

이러한 두 당사자의 대립된 구도 하에 서, 우리나라의 형사 소송 절차는 지금까 지 주로 가해자, 바꿔 말하면 피고인쪽에 중점을 두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력해 왔다. 그 이유는 피해자에 비 해 가해자인 범죄자를 더 보호하기 위함 이 아니라, 혹시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 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자신이 저지 른 범죄 이상으로 처벌받는 것을 막고, 나아가 설령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 의 인권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.

그런데 범죄자의 권리에 집중하다 보 SF 영화에서처럼 사람 몸속에 칩 등 니 실제로 피해자의 권리가 다소 가볍게 다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인식이 확산 하고 있다.

> 그래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가 법률에 보 장되기에 이르렀다.

> 그 보 장내용으로 우선 피해자는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해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검사로부터 사건의 공 소제기 여부, 공판의 일시 장소, 재판 결 과, 피의자, 피고인의 구속 석방 등 구금 에 관한 사실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, 검사는 이를 신속하게 통지할 의무 가 있다. (형사 소송법 제 259조의 2, 범

죄 피해자 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참조)

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, 제기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통지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. (형사 소송법 제258조)

그 다음으로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공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리도 있다.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소송 기록 을 열람하고,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법 률에 의해 일정 부분 보장돼 있다.

하지만, 문제는 형사 소송법이 피해자 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공판 기록을 열람, 등사할 수 있도록 정(형사 소송법 제294조의 4)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서는 재판장이 제한적으로 공판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공판 기록 의 열람 등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.

모든 경우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 만,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공판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된 서류(예를 들어 고소장, 피해자의 진술 조서)만이 허가가 될 뿐 실제로 필요한 다른 서류들, 예컨대 피 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,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서, 수사 보고서 등은 열 람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. 이는 형사 소송법의 공판 기록 열람 등사권 규정을 사문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.

고소장이나 피해자의 진술 조서는 이 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굳이 열람할 필요조차 없고, 실제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,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서, 수사 보고서 등 이 필요한데, 정작 이러한 서류들은 불허 되기 때문이다.

따라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 차원 에서 적어도 공판 서류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.

수사 단계에서는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의 사유가 있지만,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 는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류 는 이미 수사가 종결된 상태이고, 그와 같은 서류는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된 것이며, 나아가 그러한 서류의 열람·등사 없이는 피해자 가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 는 일(예를 들어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그에 반하는 증거의 제 출 등)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다.

그러므로 제3자의 진술 조서와 같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서류는 제외하 더라도, 피해자의 권리가 한층 더 실질적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어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들에 대해서는 열람・등사가 전향적으로 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.

기 고

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열쇠, 성숙한 시민 의식



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

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 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. 세 계수영선수권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전 세계 수영 동호인 들의 잔치인 마스터즈대회가 열린다. 선 수권 대회와 동호회 대회 기간 동안 세계 200여 개 국가 1만 5000여 명 이상의 선 수·임원과 가족, 그리고 동호인들이 광 주를 찾을 전망이다. TV를 통해서도 무 려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기를 시 청할 것으로 예상된다. 세계인의 이목이 광주에 집중되는 것이다.

광주를 방문한 수많은 손님들이 선수 촌 및 남부대, 염주체육관, 조선대 등 주

요 경기장 주변과 시내 곳곳을 직접 보게 된다. 방송으로 광주를 볼 국외 시청자들 도 적지 않다. 이들이 도시 가로수 사이 불법 현수막이 나부끼는 것을 보거나, 보 기에도 민망한 불법 전단지들이 곳곳에 쓰레기처럼 쌓인다면 광주의 명성도 크 게 실추될 수밖에 없다.

밭작물을 한번이라도 재배해 본 사람이 라면 '잡초는 매일같이 뽑아도 다시 자라 난다'는 것을 알 것이다. 그래서 밭작물의 정상적인 수확을 위해서는 자주 잡초를 뽑아주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. 우 리가 시가지를 거닐면서 자주 접하는 불 법 현수막이나 불법 전단지도 잡초와 별 반 다르지 않다. 잡초가 매일매일 뽑아도 다시 나오듯이 불법 광고물도 날마다 정 비는 하지만 다음 날이면 어딘가에서 다 시 생겨나 도시 곳곳을 어지럽게 만든다.

특히,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대부업 과 음란성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뿌 려지고, 가로변 가로수·전신주에는 불법 현수막이 내걸리는 현실이 안타깝다. 불 법 전단지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

상되고, 현수막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 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.

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시 에서는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하여 365일 내내 단속하고 있고, 자치구·옥외 광고협회·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 단 속 및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. 주민이 수 거해 온 불법 광고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 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고, 깨 끗한 거리 만들기 시범 구역 조성 등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그러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. 불 법 광고물을 스스로 차단하는 성숙한 시 민 의식의 고취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 하고, 시민 서포터즈,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 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예방 활동도 함 께 추진하고 있다.

아울러 불법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차 단하기 위하여 7월부터 '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'을 운영한다. '불법 광고 킬러'로 명명된 이 시스템에 입력된 불법 업체의

전화번호로짧게는 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상 해당 전화를 통화 불능으로 만들어 아무 효과를 거둘 수 없게 함으로 써 불법 광고물의 상당수가 줄어들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.

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비단 우리 시 만의 행사가 아니라 온 나라의 축제다. 광주를 방문한 국내·외 관광객들에게 깨 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 모두가 손님을 맞는 주인으로서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. 불법 광고물 철거를 수시로 하고 있지만 시내 전역을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에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.

우리 광주시민은 항상 어려울 때일수 록 진가를 발휘하는 저력이 있다. 4년 전 에 열렸던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도 대회 기간 동안 질서 정연하고, 청결하며, 안 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었다. 이번 대회도 시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기를 기대 해 본다.

社 說

아쉬운 준우승 그러나 한국 축구 미래는 밝다

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태극 전사들이 2019 국제축구연맹(FIFA) U-20 월드 컵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 역전패하면 서 준우승을 차지했다. 아쉽게 우승은 놓 쳤지만 우리 대표 팀은 한국 남자축구 사 상 첫 FIFA 주관대회 결승 진출에 이어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하는 새 역사를 썼다.

한국 U-20 대표팀은 16일 새벽 폴란 드 우치 경기장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대회 결승전에서 전반 4분 이강인의 페널 티킥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전반 34분과 후반 8분 동점골과 결승골을, 후반 44분 쐐기골을 내주며 1-3으로 패했다. 태극 전사들은 우승을 놓친 허탈한 마음에 눈 물을 글썽이며 응원해 준 한국 응원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.

이번 대회 2골 4도움에 빛나는 이강인 은 시상식에서 대회 최우수선수(MVP) 에게 주는 골든볼을 차지했다. 한국 남자 선수가 FIFA 주관 대회에서 골든볼을

수상한 것은 이강인이 처음이다. 또한 대 회 연령보다 두 살 어린 18세 선수가 골 든볼을 수상한 것은 2005년 대회에서 골 든볼과 골든부츠를 받은 '축구의 신'리 오넬 메시(32) 이후 14년 만이다.

이강인뿐만 아니라 오세훈·조영욱·전 세진·김현우·최준·이지솔 등 모든 선수들 이 잘해 주었다. 특히 잇단 슈퍼 세이브 로 한국의 골문을 든든히 지킨 이광연은 '빛광연'으로 불리며 준우승의 일등공신 이 됐다. 새롭게 쓰인 한국축구 역사에 광주 금호고 출신 엄원상·김정민과 전남 광양제철고 출신 황태현도 공수에서 맹 활약했다. '제갈용'으로 불린 정정용 감 독의 변화무쌍한 전술도 빛났다.

비록 결승전에서 체력적인 부담으로 아깝게 우승을 놓쳤지만 한국 남자 축구 의 미래는 한없이 밝다. 앞으로 10년 후 쯤이면 이들이 또 어떤 찬란한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상상해 보면서 한국 축구 대 표 팀의 사상 첫 우승을 꿈꾼다.

북한 세계수영대회 참가로 '평화의 제전'을

'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' 개막 을 20여 일 앞두고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. 북한 의 참가는 대회 흥행을 좌우할 핵심 요소 이기 때문이다. 다행히 최근 남・북・미 최 고 지도자들의 언행은 한반도 정세 변화 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.

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1차 엔트리 마 감 결과 국제수영연맹(FINA) 회원국 209개 나라 중 193개국 임원·선수·미디 어 관계자 7266명이 등록했다는데, 참가 국이나 선수단(2995명) 규모 면에서 역 대 최대이다. 하지만 북한은 이날까지 등 록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. 조직위 는 최종 마감일인 다음달 3일까지 신청 하면 참가가 가능하다며 정부와 FINA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참가를 요청 하고 있다.

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고(故) 이희호 여사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판문점 을 찾은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에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참가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 혀 주목된다. 이 자리에서 김 부부장은 "꼭 김 위원장에게 말씀 드리겠다"고 답 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"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 았다"고 공개하고, 문재인 대통령은 이 달 중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. 이와 관 련 광주시의회는 엊그제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

광주 세계수영대회의 슬로건은 '평화 의 물결 속으로'이다. 그만큼 광주 시민 들은 북한이 꼭 참가해 이번 대회가 '평 화의 대제전'으로 치러지기를 고대하고 있다. 광주는 4년 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서 끝까지 북한의 자리를 비워 둔 채 남북이 함께하기를 기원했다. 그 간절한 염원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 길 바란다.

無等鼓 🥠

걸어 다니는 유령

최근 몇몇 지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자력 전문 기업의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. 영광 한빛1호 원자로가 갑작스 러운 열출력 증가로 수동 정지된 사고 직 후였다. 한빛원전은 부실시공 등으로도 문제가 많이 지적됐던 만큼 '무언가 잘못 돼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직원들은 물론 인근 지역민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 치지 않겠느냐'는 질문을 던져 봤다.

A씨의 답변은 '예상대로' 단호했다. "원전에서 방사능은 절대 유출되지 않는

산업에 종사해 왔지만 이렇게 건강하다. 원전 직원들이나인근주민도

다. (나는) 30년간 원전

마찬가지다. 문제가 생겼거나 예상된다 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나?"

'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 유출을 완전 히 차단하고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'는 게 주장의 요지였다. 전문적인 지식도 없 거니와 '그럴수도 있겠다'는 생각이 들어 입을 다물었지만 찜찜한 기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.

그런데 얼마전 랜들 먼로가 지은 '위험 한 과학책'이라는 책을 읽다가 눈에 띄는 구절을 발견했다. "감마선에 다량 노출되

육

예 향

사 진

치

부 220-0632

제 부 220-0663

사 회 부 220-0652

전 남 본 부 220-0642

어도 인체의 DNA가 손상된다. 방사선 에 가장 민감한 세포는 골수와 소화관에 있는 세포들이다. 극도로 많은 양의 방사 선에 노출되면 금세 죽을 수 있지만, 이 경우는 DNA 손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혈액-뇌 장벽이 분해되어 뇌출혈로 급사 하게 된다. 방사선 중독은 '걸어 다니는 유령' 시기, 즉 잠복기가 있다. 신체가 아 직 기능은 하지만 새로운 단백질은 전혀 합성될 수 없고,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시 기다. 중증 방사선 중독의 경우 면역체계

> 붕괴가 사망의 제1원인 이 된다. 백혈구가 공급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

가 감염과 싸울 수 없어 평범한 박테리아까지 신체에 침투해 마 구휘젓고 다니게 된다."

원전과 국민의 건강은 둘 다 국가 안위 의 핵심적인 이슈다. 그날 지인들과의 대 화는 "방사능이 차단된다니 좋은 일이지 만,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역학 검사를 통 해 '원전 지역 주민의 건강에 문제가 없 다'는 사실을 공식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"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. 정말

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.

/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@

⟨FAX 222-0195⟩

光则日朝 The Kwangju Ilbo

사장·발행·편집·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

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(일간) 우)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

대표전화 222-8111 / 220-0551 (지사 지국 (구독 신청 배달 안내)) 광고문의 062-227-9600 경 영 지 원 국 220-0515 문화사업국 220-0541 편집국안내 〈대표 FAX 222-4918〉 편 집 부 220-0649 부 220-0661 ⟨FAX 222-8005⟩ (FA X 222-0195) 문 화 기 획 관 리 국 227-9600 업 무 국 220-0551

부 220-0633

부 220-0692

부 220-0694

디 자 인 실 220-0536 서울 지사 02-773-9331 ⟨FAX 02-773-9335⟩ ※구독료 월정 10,000원 1부 500원

(FAX 222-0195)

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